

이재명 사흘 연속 '제주항공 참사' 분향소 찾아 유가족 위로

“광주는 사회적 어머니”...새해 계획 모두 취소하고 광주·전남 빈소 방문 일정은 모두 비공식 진행...유족들 손 잡고 “요청 사항 해결위해 최선을”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말·연초 '제주항공 여객기 참사'로 슬픔에 잠긴 광주·전남 곳곳을 누비며 지역민의 아픔을 어루만졌다. 비공식 일정으로 이 지역을 찾은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행 인원만 동반한 채 지역민의 하소연을 귀를 열고, 유족의 한 맺힌 울부짖음에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.

특히 이 대표는 '12·3 비상계엄'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데도 모든 일정을 중단한 채 3일 동안 사고 현장 등을 찾아 다니며, 사고 수습에 집중하면서 '남 다른 호남에 대한 애정'을 보이고 있다.

과거 이 대표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“광주는 저의 사회적 어머니다”라고 밝힌 바 있다.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대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와 전남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. 이를 반영하듯 이 대표는 통상 정치인의 신년 첫 행보인 '현충원 참배' 대신 광주·전남을 찾아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광주 합동분향소와 무안공항 분향소를 잇따라 찾았다. 이를 위해 애초 계획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도 전격 취소했다.

이 대표는 새해 첫 날인 1일 무안공항을 찾아 유족을 만났고,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도 시민들을 만났다.

지난 12월 30일 무안공항을 찾아 지역민과 슬픔을 함께 했던 이 대표는 해남 모처에서 잠을 잔 뒤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서울로 떠나야 했다. 이후 별다른 공식 일정이 없었던 이 대표는 31일 밤 8시 20분께, 국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

고 광주에 도착해 무안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고, 2일까지 3일 일정으로 광주·전남에 머문다.

무엇보다도 이 대표의 이 지역 방문 소식이 알려지면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몰려들 것을 우려, 이번 광주·전남 일정은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.

1일 무안공항을 찾은 이 대표는 유가족의 손을 붙잡고 위로한 뒤 유가족과 함께 여객기 잔해를 살펴봤고 사고 수습 등을 위한 요청 사항을 들었다.

이 자리에서 한 유가족이 대표를 붙잡고 “1분만 시간을 내달라” 요청하자 이 대표는 “가는 것이 아니다. 돌아올 거다”며 발걸음을 멈췄다.

아홉 살배기 조카 등 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다고 소개한 이 유가족은 “(사고 처리를 위한)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”며 “조카는 어제까지도 신원 확인이 안 됐다. 3명 중 매형과 매형 어머니는 확인했고 조카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”며 울먹였다.

이에 이 대표는 말을 잃은 채 수첩을 꺼내 메모한 뒤 “충분히 이해한다.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,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이어 이 대표는 광주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.

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광주 동구 금남로 5·18 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방명록에 “이승에서의 번잡함 다 털어내고 편히 잠드소서”라는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

이 대표는 침통한 표정으로 시민과 인사를 나누는 뒤 분향소 인근의 자원봉사 전막을 일일이 찾아다

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광주 동구 5·18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광주시민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.

/나명주 기자mjna@kwangju.co.kr

니며 봉사자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. 또 노무현 재단 광주지역위원회가 마련한 자원봉사 전막에 앉아 조인철(서구갑)·양부남(서구을)·민형배(광산을) 국회의원, 강기정 광주시장 등과 지역 현안을 경청했다.

이 자리에서 여객기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돌봄문제, 사망자의 휴대전화 유실에 따른 장례 절차의 어려움, 화장장 부족 등을 건의하는 강 시장의 말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.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'12·3 계엄'과 여객기 참

사로 연말·연초 특수가 사라져 “지역 영세 상인과 지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크다”며 “추경을 통해 지역화폐를 조기에 지원하고, 이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도 큰 만큼 이 부분도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해 줄 것”을 요청했다. /오광록·김해나 기자 kroh@

권성동, 무안공항 찾아 “유족 최대한 지원” 약속

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.

지난 30일에 이어 두 번째 참사 현장 방문이다. 권 원내대표는 유족들에게 “우리 당은 유족들의 생활 안정이나 생계비, 트라우마 치료 등 유족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”며 “하루빨리 고인을 모시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이후 필요하다면 추모 사업에 대해서도 최

선을 다하겠다”며 “사태가 잘 수습되고 사고 원인이 잘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권 원내대표는 또 “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영혼에 큰 애도를 표하고,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”고 말했다.

국민의힘은 국가 애도 기간인 4일까지 소속 의원 20여명이 매일 릴레이로 무안공항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조문할 계획이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대통령실 실장·수석 등 최 권한대행에 사의

대통령실 실장·수석 등 고위 참모진들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.

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, 성태윤 정책실장, 신원식 국가안보실장,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.

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집단 사의 표명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. 해석이 나온다.

앞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지난해 12월 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이재명, 대권주자 적합도 30%대 ‘독주’... 與 후보들은 한 자릿수

언론사 3곳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홍준표·오세훈·한동훈 2~4위 각축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잇따라 발표된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와 선호도에서 30%대로 독주했다.

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,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,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권 후보들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2~4위권을 형성했다.

동아일보가 1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~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(무선 전화면접·응답률 9.3%)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9.5%가 민주당이 대표를 꼽았다.

여권 인사인 홍 시장(8.9%)과 오 시장(8.7%), 한 전 대표(8.0%)는 오차 범위에서 경쟁을 펼치는 구도였다. 이들 세 명의 적합도를 합산(25.6%)해도 이 대표에는 못 미쳤다.

이어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4.8%, 김동연 경기지사가 4.3%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(3.7%),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(3.0%),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(2.3%)이 뒤를 쫓았다. 민주당 비명(비이재명)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(1.3%)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(0.8%)도 이름을 올렸다.

이 대표는 보수 진영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 누구와 붙어도 두 배 이상 격차로 승리했다.

이 대표와 홍 시장의 양자 대결 결과는 47.6%대 20.5%로, 격차는 27.1%포인트였다. 이 대표는 오 시장과의 대결에선 48.7%를 얻어 오 시장(21.9%)을 26.8%포인트 차이로 앞질렀다. 그는 한 전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선 48.0%를 얻으며 한 전 대표(16.7%)를 31.3%포인트 차이로 눌렀다.

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지난달 29~30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(가상번호 면접조사·응답률 15.3%)에서도 이 대표가 35%로 1위를

달렸다. 여권에서는 홍 시장(8%), 한 전 대표(6%),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·오 시장(각 5%) 등이 한 자릿수 선호도를 나타냈다.

또 우 의장이 4%, 이준석 의원·김동연 지사·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·유승민 전 의원·안철수 의원이 각 2%를 기록했다.

경향신문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달 28~29일 전국 18세 이상 1020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물은 조사(무작위 전화 면접·응답률 19.8%)에서 역시 이 대표는 33%로 1위를 기록했다.

이어 한 전 대표(7%), 김 장관·오 시장(각 5%), 홍 시장(4%) 등이었다.

김 지사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, 우 의장,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란히 2%, 안 의원과 이 의원, 유선 의원 등이 1%를 기록했다.

앞서 언급된 세 여론조사 모두 95%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±3.1%포인트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. /연합뉴스

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거래소



지구 탄소 다이어트 K-Energy 플랫폼, 전력거래소

우리가 살을 빼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
지구도 탄소를 빼면 더 건강해집니다.
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실행기관 전력거래소!
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속에서 우리나라 전력계통을
365일 24시간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하여
깨끗하고 건강한 탄소제로 세상이
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전력거래소가 “K-Energy” 패러다임의
거대한 변화를 이끌어갑니다.

